

다윗과 예수: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올여름, 저는 손자 노아와 함께 이야기 시간을 정말 즐겼습니다.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가족들이 등장했는데, 물론 노아는 자기가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했지요.

저는 이야기를 장(chapter)으로 나누어 들려주었고, 그래서 노아는 다음 이야기를 늘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이야기 시간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요. “할아버지, 다음 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끔 노아가 제 이야기를 끊으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노아가 하는 이야기에서는 대개 어두운 동굴로 향했는데, 거기에는 빛나는 눈을 가진 공룡이 있었습니다, 네 개의 수염, 그리고 축축한 코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축축한 코냐구요?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는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에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장자권을 맛없어 보이는 죽한 그릇과 바꾸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노아는 어린 소년이기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는 이야기죠! 노아는 항상 하나님 이야기의 다음 장을 듣고 싶어 합니다. 노아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민족, 문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 5쪽)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인간은 진정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우리 모두를 움직입니다.

아, 우리는 더 많은 교육을 받거나 돈을 벌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다른 옷을 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행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완성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더 하고 경험하든, 그 갈망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것은 편안함, 안전, 명예, 권력, 섹스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바로 신에 대한 갈망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를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끕니다.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사랑받을 때나 배신당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죄를 회개할 때나 말입니다. 다윗 왕은 용감한 전사이자 나라를 세운 사람이며 재능 있는 시인이었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아버지, 간음자,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잠시 오후 시간을 내어 그의 시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7장 12-13절입니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다스릴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다윗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을 가리키는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1) 목자인 왕입니다.

우리가 처음 다윗을 보았을 때, 그는 베들레헴 언덕에서 수금을 타며 아버지의 양 떼를 지키는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그 거인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 그는 사울 왕에게 자신이 목동 시절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목동의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며 전능하신 여호와께 승리를 맡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5장 2절)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는 보호하는 목자로서 가장 훌륭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60회 이상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라를 올바르게 돌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권력을 남용해 남의 아내를 취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할 목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스스로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배우는 데 더디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쉽게 길을 잃는 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목자를 선택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ORD’가 모두 대문자로 쓰인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야훼(YAHWEH)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의 뿌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입니다. 야훼는 항상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십니다. 모든 존재는 그분께 의존해 존재합니다 – 온 피조물, 모든 생명체, 그리고 모든 사람까지도요!

야훼는 모든 백성의 목자이시지만, 이 시편의 강조점은 “나의 목자”입니다. 시편 23편 1-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에게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평안한 쉼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누이시니 다윗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자는 그를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쉼의 물”입니다. 이는 양들이 서두르지 않고 기력을 회복하는 샘이나 우물과 같은 곳을 뜻합니다.

다윗은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이런 쉼의 장소를 찾았을까요?

시편 23편 3절 후반부 “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다”

야훼는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야훼는 그를 목적 없는 굽은 길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흔들리는 어두운 날에도 이것을 확신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에서 대명사가 바뀐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다윗은 목자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하던 방식에서, 직접 목자에게 말하며 “주께서(당신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의 중심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라는 구절을 둡니다. 왜일까요? 야훼께서는 삶의 모든 중심이 되시며, 자신의 양 떼를 먹이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가 양들을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때, 양들은 종종 깊고 거친 마른 계곡(와디)을 지나야 합니다. 어떤 깊은 협곡에는 빛조차 없으며, 양들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낭떠러지일 수도? 야생 짐승일지도? 모르지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계절 속에서도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세심히 인도하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이끄시며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였고, 막대기는 목자가 야생 짐승을 때려눕히는 몽둥이였습니다. 그것은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개인적인 목자이신 야훼를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갖도록 합니다. 야훼는 누구입니까? 다윗으로부터 천 년이 지난 후,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과 마을을 다니실 때 군중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다(compassion)”라는 단어는 매우 깊은 감정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영어식으로 말하면 “속이 뒤틀리듯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뒤틀리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를 묘사하는 두 단어와 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생한”이라는 말은 “걱정하고, 정신적·감정적으로 괴로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안한(ANXIOUS)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야

말로 불안한 세대입니다. “기진한”이라는 말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자신을 구할 힘도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신적·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즉, 우울한(DEPRESSED) 상태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말은 그들이 외롭다는 뜻입니다. 떠돌며, 인도하심도 없고, 보호도 없고, 공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날의 초연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욱 불안하고, 우울하며, 외롭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삶의 인도자로 삼아 스스로 인생을 돌보려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불안하고, 우울하며, 외로워질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면 Jonathan Haidt의 『The Anxious Generation 불안한 세대』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것을 보실 때 마음 깊이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은 곧 “나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표현된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운 돌보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27)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제 이름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후반부) 그 생명은 한없는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28-29)

예수님, 곧 야훼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종교로 오라” 또는 “영성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초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스스로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지쳐버린 자들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피곤함은 종종 우리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목자이자 왕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내가 네 영혼을 소생시키리라. 네 생각(네 질문들), 네 감정(네 불안과 두려움), 네 일상의 결정과 인생의 큰 선택 속에 내가 쉼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와야 한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결코 강요하거나 잔인하거나 사람을 조종하거나 간교하거나 거짓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야훼이십니다.

무엇이 당신을 짓누릅니까? 어떤 압박과 투쟁, 어떤 실망 속에 있습니까?

저는 저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 십 대 시절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대학을 갔을 때, 처음으로 오랜 기간(4년)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의 목자이셨습니다.
- 주디와 결혼생활 내내, 42년 동안 주님은 저의 목자이셨습니다.
- 세 딸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쓸 때에도 주님은 저의 목자이셨습니다. 아이마다 다르고, 삶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 브라질로 이주했을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땅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온 여러분은 이 적응 과정에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목자이셨습니다.
- 아내가 두 차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암 수술 직전, 한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시편 23편을 낭송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 브라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0년 동안 윌링던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는 동안에도 저는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참으로 신실한 목자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까?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0하-11)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살도록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다시금 더 위대한 분을 가리킵니다.

2. 종되신 왕(Servant-King)

다윗은 여러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이 괴로워할 때 수금을 타며 그를 섬겼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명성을 질투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며 사울의 왕국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골리앗만큼 거대한 적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유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밤에 사울이 진영에서 잠들었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그에게 몰래 접근합니다.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를 막고, 단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져가 자신의 기회를 증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사울 왕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그는 사울 왕을 계속 존중했습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찾았는데, 그는 다섯 살 때 떨어져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비를 베풀어 그를 자신의 아들 중 하나처럼 식탁에 앉혀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시에 무자비한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통치 내내 그는 아내와 첩을 취하고, 보석과 노예, 명예와 권력을 모았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궁전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매혹적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장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더 나은 섬기는 왕, 그 나라가 끝나지 않을 왕을 고대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원수로부터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주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다윗으로부터 약 300년 후,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9:6-7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이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할 때,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로 알려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1하-33

31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맹인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구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27; 20:30)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하소서!” 곧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뜻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 1000년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시편 22편:

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 왕은 구주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42절 상반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의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42절 하반절: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다윗 왕의 시편 중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110편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43-44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여호와’는 야훼(YAHWEH), 두 번째 ‘주’는 **아도나이(Adonai)**입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내 아도나이께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에게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은 메시아가 단지 자신의 후손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가 되실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 후손이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땅의 왕이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고난받는 종으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위대한 군대를 이끌어 나라들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윗은 자신의 구주를 갈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합니다. 시편 22편의 끝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이 섬기는 왕의 온 세상 통치를 예언합니다.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 위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섬기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와 손주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그리고 인류 역사)의 중심 이야기, 결정적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없이는 다윗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을 품고 있다.”

또 다른 다윗, 뉴욕타임스 기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수주의 기자로 일하는 건 마치 메카에 있는 유대 랍비처럼 느껴진다.” 정말 고립된 기분이겠지요!

데이비드 브룩스는 하나님을 갈망하던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택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소망과 의미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윗은 매우 미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인, 찬양가, 작곡가로서의 그의 재능이 우리를 여호와 경배로 이끈 것
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
그의 삶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

언젠가 모든 무릎이 목자 되신 왕이자 종 되신 왕 앞에 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수들—죄, 죽음, 그리고 악—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며 외로운 이들에게, 예수님은 목자이시며 섬기는 왕이십니다. 죄책감에 짓눌린 자들, 기대를 이루지 못해 부끄러워하는 자들, 죽음이 두려운 자들, 악의 억압을 받는 자들—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예수님은 목자이시며 섬기는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의 기도:

예수님, 제 영혼이 주님께 와서 안식을 누리도록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맞아 주시어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저의 목자 되신 왕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 제 삶을 살아가려 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완전한 종이신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제가 주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저는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위해 주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 삶을 주님께 드리며, 제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드렸다면 누군가에게 꼭 알리십시오.

제자의 기도 (회중이 함께 읽음)

예수님, 주님은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저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 속에서 자주 주님을 떠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죄를 자백하며 돌이키오니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님은 저의 구주이시며 저의 섬기는 왕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제가 어떻게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저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